

# 한중경제포럼

제26-01호 2026년 4월 30일

## 중국 15차 5개년 계획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2026년 제1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중국 15차 5개년 계획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2. 일 시: 2026. 4. 24(금) 14:00~16:00
3. 발표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왕리웨이(王立伟) 부주임

### 1. 중국 5개년 계획 수립 시스템

#### □ 계획에 대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지시

- 과학적 계획이 최고의 효익, 계획 오류는 최악의 낭비, 계획 혼란(잡은 변경)은 최대 금기사항
  -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다스리고 정치를 운영하는 중요한 방식임.
  - 이는 중국 정치의 장점으로 당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서 당과 전국의 지혜를 모아 △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 정해진 목표와 방향을 향해 추진하며, △ 한 임기에서 다음 임기로 계속해서 노력해 하나의 청사진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음.

#### □ 국가 계획 시스템

- 2018년 9월, 시진핑 총서기 주최 하에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일적 계획 시스템 구축 및 국가 발전 계획의 전략적 방향 제시 역할 강화에 관한 지침(의견)'을 심의함.
- 5개년 계획 아래에 ① 특정 분야에 대한 계획인 특별 계획, ② 국토공간에 대한 계획인 공간 계획, ③ 광역 및 특정 지역에 대한 계획인 지역 계획을 설치함.

- 그중 특별 계획은 특정 분야에 대한 국가발전 계획의 전략적 임무를 구체화하며, 원칙적으로 국민 경제사회 발전의 전반적 상황과 관련된 분야 및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장 실패 분야에 한함.
- 공간 계획은 국가발전 계획이 제시한 국토 공간 개발 및 보호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며, 국무원 관련 부처가 작성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음.
- 지역 계획은 국가발전 계획이 특정 지역에 대해 마련한 전략적 임무를 구체화함.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 강요'는 통일된 계획 시스템으로 최상위·총 지침 역할을 하고 성급 발전 계획과 시·현(市縣)급 발전 계획을 통해 국가발전 계획을 구체화함.

#### □ 5개년 계획의 역할

- 공산당 주장을 국가 의지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수단임.
- 새로운 단계에서 정부가 직무를 잘 수행하게 하는 중요 근거임.
- 전국 각 민족·인민이 새로운 시대의 여정을 향해 함께 분투하는 공동 실천 지침임.

#### □ 5개년 계획의 전략적 목표

- 5개년 계획별 전략적 목표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각각 다름.
- '6.5' 계획과 '7.5' 계획의 목표는 국민의 기본 생계를 해결하는 것임.
- '8.5' 계획과 '9.5' 계획의 목표는 전반적 소강(小康)을 이루는 것임.
- '10.5'~'13.5' 계획의 목표는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임.
- '14.5'~'16.5' 계획의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것임.
- '17.5'~'19.5' 계획의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것임.

#### □ 5개년 계획의 내용

- △ 발전 환경 분석 △ 지도 방침 △ 주요 목표 △ 중점 임무, 주요 정책조치, 중대 공정·프로젝트 △ 계획의 실시 보장

## 2. '15·5' 계획의 전략적 방향

#### □ '15·5' 계획은 공산당 20기 4중대회 정신의 전면적 실시임.

- '15·5' 계획의 위상 :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전환기적 중요 지위에 있음.
- '14·5' 계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의 첫 번째 5년으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양호한 시작을 실현하였음.

- '15·5' 기획 시기는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시기로, '15·5' 기획을 잘 수립하고 실시하면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견고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음.
- '15·5' 기획 시기의 발전을 구상함에 있어서 '14·5' 기획에서 제시된 이념 및 구상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5년간 중국 발전 추세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총체적 구상, 중대 원칙, 주요 목표, 전략적 과제를 제시해야 함.
- '15·5' 기획의 목표 : 경제사회 발전의 적정 속도 유지
  - 고품질 발전의 뚜렷한 효과 달성 : △ 경제성장은 합리적 구간(4.17%) 유지, △ 총요소생산성의 현저한 향상, △ 주민 소비율의 현저한 상승, △ 내수를 통한 경제 성장동력 확대, △ 경제성장 잠재력 방출
  - 과학기술 자립자강 수준 대폭 향상 : △ 기초연구와 원천 혁신 능력 현저히 제고, △ 중점 분야의 핵심기술 빠르게 돌파, △ 선두분야 확대, △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적 융합, △ 혁신동력 강화
  -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새로운 돌파 : △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 및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심화, △ 사회주의 시장경제 메커니즘 정비, △ 고품질 대외 개방 메커니즘 구축
  - 사회 문명 수준 제고 : △ 문화 자신감 확대, △ 국민정신·문화생활의 다양화, △ 중화민족 응집력과 중화 문화의 영향력 확대
  -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 △ 주민소득과 경제의 동반 성장, △ 노동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동반 향상, △ 중등 소득계층의 지속적 확대
  -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진전 : △ 탄소 배출 정점 목표 기한 내 달성, △ 청정·저탄소의 안전하고 효율 높은 신 에너지 시스템 초보적 구축
  - 국가 안보 방어벽 강화 : △ 국가 안보 시스템과 능력 향상, △ 중점 분야의 리스크 효과적 해소, △ 사회 거버넌스와 공공 안보 거버넌스의 뚜렷한 향상, △ 건군(군 창립) 100년 분투 목표 기한 내 실현
- '15·5' 기획의 주제 : 고품질 발전 추동
  -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 새로운 발전이념의 전면적 관철을 확실히 하고, △ 유효한 질적 성장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실현하며, △ 경제의 지속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 진보를 추진함.
  - 고품질 발전 추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로 신질 생산력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이며, △ 기술혁신, △ 신성장동력 육성, △ 경제구도 개선 등에서 실질적·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해야 함.
  -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며, 현실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건의'는 지역 여건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과학적·이성적·실사구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한데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15·5' 기획의 중요 수단 : 강대한 국내시장 건설,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 가속화
  -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심각할수록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성장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함.
    - ※ 현재 및 향후 일정 기간 국내 대순환을 강화하고 강대한 국내경제 순환 체계를 형성하여, 국내 순환의 안정성을 통해 국제 순환의 불확실성에 대응함.
  - 내수 확대 전략에 기반해 민생 안정과 소비 촉진을 지속해야 함.
    - ※ △ 인적 투자와 물적 투자를 긴밀히 결합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 유효 투자를 확대하며, △ 전국 통일시장 구축의 병목·장애물 해소하고, △ 각 경영 주체의 활력을 자극하며, △ 요소 배치의 시장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거시경제 거버넌스 효율을 확대해야 함.
    - ※ △ 국제 순환을 확장하고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 다자간 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함.

- '15·5' 계획의 목적 : 전 국민의 공동 부유에 견실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임.
  - 중국식 현대화는 모든 국민 공동 부유의 현대화로, 전 국민 공동 부유를 향한 확고한 발전은 '15·5' 계획 시기 경제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임.
  - 공동 부유의 목표와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고, 민생 보장과 개선에 초점을 맞춰, △ 고품질의 충분한 고용 촉진, △ 소득 분배 제도 개선, △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 실현, △ 사회보장 시스템 개선, △ 부동산의 고품질 발전 추진, △ 건강한 중국 건설 가속화, △ 인구의 고품질 발전 촉진, △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의 안정적 추진 등 분야에서 균형성과 접근성이 강한 정책조치를 실시함.
  - 지역 격차 및 도농 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국민의 정신적 공동 부유 촉진을 위해 노력함.
- '15·5' 계획의 보장 : 발전과 안보의 통합적 고려
  - 안보는 발전의 전제 조건이며 발전은 안보의 보장임.
    - ※ 향후 5년간 중국은 각종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뚜렷하게 증가할 것이며, 발전과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건'의는 국가 안보 시스템·능력 현대화를 위해 △ 국가 안보 시스템을 완비하고, △ 중점분야의 국가 안보 능력 구축을 강화하며, △ 공공 안보 거버넌스 수준을 제고하고, △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을 완비할 것을 제안함.
  - 고품질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추진을 위해, △ 첨단 전투력 건설을 가속화하고, △ 군사 거버넌스 현대화를 추진하며, △ 통합된 국가 전략 시스템과 능력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킬 것을 제안함.
- '15·5' 계획의 근본적 보증 : 당의 전면적 지도 견지
  - 당의 전면적 지도력 견지와 강화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근본적 보증임.
  -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당의 지도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지도력을 견지 강화하며, 당 중앙의 중대 결정 및 계획의 집행 메커니즘 완비함.
  - 당의 혁신 이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사상, 의지, 행동을 통일하고, 올바른 인재 기용의 방침을 견지하며, 간부 평가 및 심사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각 분야별 기층 당 조직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함.
  - 중앙의 '8항 규정'정신을 끈기 있게 이행하고, 당과 국가의 감독 시스템을 완비함.
  - 반부패 투쟁의 공세전(攻坚战), 지구전(持久战), 총력전(总体战)을 단호히 수행함.

## □ '15·5' 계획 강요의 내용 구성

- '15·5' 계획의 내용 구성 : 총 18편, 62장
  - '13·5' 계획은 총 20편 80장으로 혁신, 개혁, 농업, 산업, 인터넷 경제, 인프라, 도시화, 지역, 생태 환경, 개방, 홍콩-마카오-타이완, 빈곤 퇴치, 교육·건강, 민생, 문화, 사회 거버넌스, 민주 법치, 국방 등 내용을 포함함.
  - '14·5' 계획은 총 19편 65장으로 혁신, 산업, 국내 대 시장, 디지털화, 개혁, 농촌진흥, 도시화, 지역, 문화, 녹색, 개방, 국민 소양, 민생, 안보·국방, 민주 법치, 홍콩-마카오-타이완 등 내용을 포함함.
  - '15·5' 계획은 총 18편 62장으로 현대화 산업, 과학기술 자립자강, 국내 거대시장, 디지털화·스마트화, 고품질 시장 경제체제, 대외 개방, 민생, 사회 거버넌스, 문화, 인구의 질적 발전, 국방과 군대, 현대화 농촌, 지역, 안보, 민주, 조국 통일 등 내용을 포함함.
- '15·5' 계획의 주요 내용 구성
  - 제1편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 개척

- 제2편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실물경제 기반 확대
- 제3편 고품질 과학기술 자립자강, 신질 생산력 발전 주도
- 제4편 디지털 중국 건설 강화, 디지털화·스마트화 발전 수준 제고
- 제5편 강대한 국내시장 건설,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
- 제6편 고품질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 구축, 질적 성장동력 강화
- 제7편 고품질 대외 개방 확대, 협력 상생의 새로운 국면 개척
- 제8편 농업·농촌현대화 가속화, 농촌 전면 진흥 추진
- 제9편 지역경제 배치 최적화,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촉진
- 제10편 전 민족 혁신창조 능력 활성화, 사회주의 문화 번영 발전
- 제11편 인구발전 전략 완비, 인구의 고품질 발전 촉진
- 제12편 민생 보장과 개선 확대, 전 국민의 공동 부유 추진
- 제13편 경제사회의 전면적 녹색 전환 추진, 아름다운 중국 건설
- 제14편 국가 안보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 추진, 고품질 안전한 중국 건설
- 제15편 건군 100년 분투 목표 실현, 고품질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추진
- 제16편 전체 과정에 걸친 인민 민주 발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적 시스템 완비
- 제17편 '일국양제' 견지 및 완비, 조국 통일 추진
- 제18편 계획 실시 보장 강화

#### □ '15·5' 계획 시기의 발전 환경

- 국제 차원
  - 전 세계적으로 백 년의 대변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국제무대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외부 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함.
- 국내 차원
  - △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적 우위, △ 초대형 규모의 시장 우위, △ 완벽한 산업 사슬 우위, △ 풍부한 인적자원 우위가 부각됨.

#### □ '15·5' 계획의 지도 방침

- 사명과 임무에 확고히 집중
  -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 번째 백 년 분투 목표를 실현함.
  -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
- '하나의 종합 고려와 두 가지 견지' 전략적 방향 파악
  - 국제 및 국내의 큰 형세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안정적 성장의 편더멘탈을 견지함.

-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견지함.
- 4개 발전경로 견지
  -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제로 하기
  - 개혁 혁신을 근본 동력으로 삼기
  - 국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 충족을 근본 목적으로 하기
  - 전면적 엄격한 당 관리를 근본 보장으로 삼기
- '두 가지 추진, 한 가지 확보' 전략적 방향 예의주시
  -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제고와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추진함.
  - 사람(人)의 전면적 발전과 전 국민의 공동 부유를 확고히 추진함.
  -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결정적 진전을 확보함.

#### □ '15·5' 규획의 주요 목표

- 경제성장 관련 3개 지표
  -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적정 수준을 유지함.
    - ※ 합리적 구간 유지, 연도별로 실정에 맞게 제시함.
    - ※ 2035년 1인당 GDP를 2020년 대비 2배 증가시켜 중진국 수준 달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함.
  - 전체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GDP 성장률 상회 수준을 유지함.
  -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71% 달성함.
- 혁신동력 관련 3개 지표
  - 전 사회 R&D 경비 투입은 연평균 7% 이상 증가함.
  - 인구 1만 명당 고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은 22건 이상 달성함.
  - GDP 대비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는 10.5%에서 12.5%로 확대시킴.
- 민생복지 관련 7개 지표(5대 지표 중 민생복지 관련 지표는 1/3 초과, 최대 비중 차지)
  - 도시 실업률은 5.5% 미만으로 통제함.
  - 주민 가처분소득은 GDP와 동반 증가함.
  - 노동연령 인구의 평균 교육 연도는 11.7년으로 증가시킴.
  - 인구 천 명당 의료 종사자 수는 전업 의사수 3.7명과 등록 간호사 수 5.1명으로 확보함.
  - 양로 기관 내 간호형 병상 비율은 73%로 증가함.
  -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은 6%p 향상시킴.
  - 평균 기대수명은 80세로 연장함.
- 녹색 저탄소 관련 5개 지표
  -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 감소함.
  - 에너지소비 중 비화석 에너지 비율은 25%로 확대함.
  - 지급(地级) 이상 도시의 초미세 먼지(PM2.5) 농도는 27 $\mu\text{g}/\text{m}^3$ 로 감소함.

- 우수 수질 비율은 85%로 확대함.

- 산림 피복율은 25.8%로 확대함.

- ※ 그중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소비 중 비화석 에너지 비율 확대 목표는 '15·5' 계획 시기 탄소 피크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 추가된 지표임.

- 안보 보장 관련 2개 지표

-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은 약 1조 4,500억 근(7억 2,500만 톤) 수준에 달성함.

- 에너지 종합 생산 능력은 58억 톤 표준 석탄 수준에 달성함.

### 3. '15·5' 계획의 중대 임무

#### □ 임무 1 : 신질 생산력 육성 발전

-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 △ 경제 발전의 중심을 실물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고, △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 방향을 고수하며, △ 제조업의 합리적 비중을 유지하고, △ 첨단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 산업 시스템을 구축함.

-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발전을 추진함.

- ※ △ 국가표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 디지털·스마트화 녹색 기술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며, △ 환경 보호 및 안보의 제도적 제약 역할을 강화함.

- ※ 첨단 신소재, 기초 부품 및 소재, 기초 소프트웨어 및 산업 소프트웨어, 공작기계, 첨단 계측 장비 등 산업의 기초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킴.

- ※ 대형 여객선, 대형 LNG 화물선, CR450 고속철도용 동력 분산식 열차, 농기구 장비, 계열화 가스 터빈, 고수두(高水頭) 대용량 수차 발전기 세트 등 중대 기술 장비를 발전시킴.

- 신항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 발전시킴.

- ※ 원천기술 공급, 응용 시나리오 구축, 생태 시스템 육성 등을 추진함.

- ※ 직접 회로, 임베디드 AI, 바이오 제조, 신형 배터리, 상업용 우주개발, 국산 항공기, 저고도 장비, 녹색 수소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첨단 의료기기 등 신산업과 신규 프로젝트를 육성 발전시킴.

- 서비스업을 고품질·고효율적으로 발전시킴.

- ※ 생산형 서비스업에서 전문화·고부가가치로 확장하여 생산형 서비스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대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 현대농업의 융합 발전 수준을 향상시킴.(예컨대 과학기술 서비스, 금융리스, 물류 창고, 인적자원,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디지털화·스마트화로 전환, 비즈니스 서비스 등)

- ※ 생활형 서비스업의 고품질·다원화·편리화 발전을 촉진하여 △ 양로 및 영유아 보육, 건강 등 보편적 혜택 중 부족한 점을 보강하고, △ 도매와 소매, 숙박 및 요식업의 특색·고품질 발전을 장려하며, △ 가사 서비스, 부동산 관리, 택배업 등의 브랜드화·표준화 발전을 추진함.

- ※ 서비스업의 발전 정책 시스템을 완비하여 서비스업 자금지달과 토지 사용 모델을 혁신하고 고품질 서비스 보증, 인증, 라벨 제도를 실시함.

- 현대화 인프라 시스템 구축

- 현대화 복합 교통 운송 시스템을 완비함.
  - ※ △ ‘팔종팔횡(八縱八橫)’ 고속철도 간선망, △ 국가 고속도로망, △ 세계급 항만 클러스터, △ 세계급 공항 클러스터, △ 고표준 연강(沿江) 통로연결, △ 국가 고속도로 중요 구간의 안전성 제고, △ 광저우(廣州), 난통(南通)에 새 공항 건설 등을 기본적으로 완료함.
  - ※ 내륙 하천의 고등급 항로 품질을 개선하며 삼사(三峽) 신규 항로를 건설함.
  - ※ 쓰촨(四川)-티베트(西藏)철도 중 야안(雅安)-린즈(林芝)구간 G219, G331 연결 통로연결 등을 통해 취약 지역의 인프라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확보함.
- 신형에너지 인프라 구축 가속화
  - 비화석 에너지의 10년간 2배 증가 행동 계획을 추진함.
    - ※ 삼북(三北) 풍력·태양광 발전, 서남 수력·풍력·태양광 발전 통합화, 연해 원전 발전, 해상 풍력 발전 등 청정 에너지 기지 건설을 추진함.
    - ※ 야루장포강 하류의 수력 발전 개발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고 해상 풍력 계통 연계설비 용량 1억 KW 이상 달성하며, 서전동송(서부지역 전력을 동부로 공급) 송전 규모 4.2억 KW 이상 달성함.
  - 현대화 수력망 건설 가속화
    - ※ 홍수방지, 피해 경감 : 홍수방지용 저수지, 하천 및 제방 시설, 홍수 저류지역 건설을 강화함.
    - ※ 대규모 용수 인출 및 조정 : 남수북조(南水北調) 동선 2단계 프로젝트, 중선 강수보한(引江補漢)을 추진함.
    - ※ 용수공급 및 관개 : 대·중형 관개 지역 건설 및 개조를 일괄적으로 추진함.
- 신형 인프라 적정 수준의 선제적 건설
  - 전국 통합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를 구축함.
  -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함.
  - 5세대 이동통신(5G), 기가급 광 네트워크 대규모 구축, 5세대 이동통신 진화(5G-A), 10기가급 광 네트워크 건설 구축,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혁신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함.
  - 데이터 인프라와 저고도 비행 인프라를 건설함.
- 고품질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 △ 새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 기회를 포착하고 △ 국가 혁신 시스템의 전반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 자체 혁신 능력을 전면 강화하고 △ 기술 발전의 결정적 고지를 선점하며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융합을 촉진함.
  - 원천 혁신과 주요 핵심기술 난관을 극복하고 기초연구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킴.
    - ※ 수요 기반의 핵심기술 난제 도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과제 공모 책임제(揭榜挂帥)’, ‘경쟁적 병행 개발(賽馬)’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함.
    - ※ 특히 인공지능, 양자 기술, 제어 가능한 핵융합, 생명과학과 바이오 기술, 뇌과학 및 뇌 모방 연구, 중대 질병 예방 및 혁신 약 개발, 심해·심지·극지탐사, 심우주 탐사 등 첨단기술 난관을 극복함.
    - ※ 목표 중심과 자유 탐색을 병행하고 R&D 경비 중 기초연구 경비 비중을 현저히 높임.
  - 전략적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 배치를 강화함.
    - ※ 글로벌 과학기술 프런티어를 목표로 시스템적 배치를 강화함.
    - ※ 기초이론 및 원천기술 돌파에 박차를 가함.
    - ※ 2035년을 대비하는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배치함.

- 시스템화 혁신 능력을 제고시킴.
  - ※ 국가 전략적 기술 역량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실험실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
  - ※ 기술 경비 관리 사용 메커니즘 구축 등을 통해 기술혁신 자원 확보를 강화함.
- 국가 중대형 과학기술 인프라를 시스템적으로 배치함.
  - ※ 베이징(징진지), 상하이(창장삼각주),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 국제 기술혁신 센터 등 세계급 기술혁신 발원지를 구축함.
  - ※ 청두-충칭 지역, 우한, 시안에 지역 기술혁신 센터를 구축함.
- 고수준 기술 개방 협력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함.
  - ※ 각국 과학기술 연구자와 기초 선도 과학 문제를 공동 해결함.
- 기업의 기술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함.
  - ※ 프로젝트, 플랫폼, 데이터, 인재 등 혁신자원이 기업으로 유입되도록 강화함.
  - ※ 기술형 중추기업 주도의 혁신 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 연구기관과의 R&D 공동 추진 등을 통한 기업주도형 산학연 융합 혁신을 가속화함.
  - ※ 장기자본의 초기 투자, 소액 투자, 장기 투자, 하드테크 투자 지원 정책 개선 및 지식재산권의 전 주기적 보호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기업혁신의 정책 시스템을 구축함.
- 교육·과학기술·인재 발전을 통합하여 추진함.
  - ※ 기획 연결, 정책 협동, 자원 통합, 평가 연계 등으로 기술 혁신과 인재 자체 육성 사이의 선순환을 형성함.
  - ※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교육센터, 과학기술 센터, 인재센터 건설 등 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함.
  - ※ 인공지능, 직접 회로 등 신흥분야의 시급히 필요한 학과 및 전공을 파격적으로 신설하고 최우수 혁신형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여 혁신형 인재 육성을 공동 추진함.
  - ※ 프로젝트 평가, 기관 평가, 인재 평가, 소득분배 개혁을 심화하고 해외 유치 인재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인센티브-평가 메커니즘의 연계 혁신을 추진함.

#### - 디지털 중국 건설의 심층적 추진

- △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의 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 데이터 요소 잠재력을 활성화하며, △ 디지털화·스마트화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 '인공지능(AI)+' 심화·확장을 촉진하며, △ 생산 방식의 심층적 변혁과 생산력의 혁명적 도약을 촉진함.
- 컴퓨팅파워·알고리즘·데이터의 유효 공급 시스템을 강화해 디지털화·스마트화 발전 기반을 마련함.
  - ※ △ 국가 컴퓨팅 파워 허브 시설 클러스터 구축 가속화, △ 저지연(低時延) 시나리오 수요 기반의 컴퓨팅 파워 적정 개발, △ 초대규모 지능형 컴퓨팅 파워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컴퓨팅 파워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고 클라우드-엣지-디바이스 간 협력 발전을 추진하며, 녹색 전력과 컴퓨팅 파워 간 협력 배치를 추진함.
  - ※ △ 모델 아키텍처 개선 및 알고리즘 최적화 추진, △ 모델-칩-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 간 협력 혁신, △ 범용 인공지능(AGI) 발전 경로 모색 등을 통해 모델 및 알고리즘의 반복적 혁신을 촉진함.
  - ※ △ 국가 디지털 자원 통합 원장 시스템(一本账) 구축, △ 인공지능 언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속화, △ 에너지, 교통, 제조 등 분야를 위한 고품질 데이터셋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자원 개발과 이용을 심화함.
- 디지털화·스마트화 기술 역량을 전면적으로 강화함.
  - ※ △ 디지털경제 핵심 산업 확대 △ AI 네이티브 기반 신모델·신업태 육성 △ 제조업의 스마트화 개조·디지털

전환·네트워크 연계 △ 서비스업의 디지털·스마트화 △ 스마트 농업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 융합을 촉진함.

※ 전 국민 디지털 소양과 능력 향상 행동 계획 실시와 인공지능의 고용 창출 효과 강화를 통해 더 나은 디지털·스마트화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함.

※ △ 정확한 수요 파악, △ 능동적 서비스 기획, △ 전 과정에 걸친 스마트화 처리 등을 통해 정부 거버넌스의 디지털·스마트화 수준을 향상시킴.

○ 인공지능+ 행동 계획을 실시함.

※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해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 및 기술개발 모델을 모색함.

※ 소비의 질적 향상과 관련해 차세대 스마트화 단말을 개발하고, 스마트화 서비스 소비의 신 시나리오를 육성함.

※ 민생복지와 관련해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모델 변혁을 촉진하고, 보조 진료, 건강관리, 노인 및 장애인 지원 등 분야에서의 디지털·스마트화 기술 응용을 추진함.

※ 산업발전, 거버넌스 능력 향상, 글로벌 협력을 추진함.

○ 건전하고 질서 정연한 발전 생태계를 조성함.

※ 데이터 재산권, 유통 활용, 수익 배분, 보안 거버넌스 등 디지털 요소의 기본 제도를 구축함.

※ 법률·법규, 제도, 적용·윤리 규범 등 AI 분야 정책을 정비하고 과학적·효율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함.

※ 플랫폼 경제 혁신과 건전한 발전을 추진함.

-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 가속화

○ △ 탄소 피크(碳达峰)와 탄소 중립을 동력으로 삼고, △ 생태 문명 제도 정비를 담보로 하여, △ 탄소 감축, 오염 저감,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력적으로 추진하며, △ 생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 생태 안전 방어벽을 구축하며, △ 녹색 발전 동력을 강화함.

○ 탄소 피크 적극적·안정적으로 추진함.

※ △ 지방 탄소 배출 평가, 업종별 탄소 배출 관리통제, 기업별 탄소 배출 관리, 프로젝트별 탄소 배출 평가, 제품별 탄소 배출 흔적 등 조치를 취하고, △ 신규 건설 및 개·증설 '고에너지·고배출(兩高)'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탄소 배출량 등량 또는 감량 대체제도 시행하며, △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탄소 배출 총량과 강도에 대한 이중조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함.

※ △ 새로운 전력 수요를 신규 청정에너지 발전량으로 충당하는 시스템 구축 가속화, △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량 10% 내외 감축 등을 통해 중점분야 에너지절약 및 탄소 감축을 추진하며, 화력발전,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등 산업의 에너지 소비량을 1.5억 톤 표준 석탄 이상 절감함.

※ △ 고소비·고배출 프로젝트 관리 통제 △ 녹색 저탄소 기술 장비 혁신응용 △ 제로탄소 산업단지 건설 등을 추진해 100개 내외의 국가급 제로탄소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제로탄소 운송회랑 시범 구간을 건설함.

※ 극단기후 대응능력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남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제고시킴.

○ 환경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오염감소-탄소감축 간 협동 발전, 다양한 오염물에 대한 협동 제어, 지역간 협동 관리 등을 추진함.

※ 대기·수질·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종합 정책의 심층적 추진을 통해 △ 대기의 질적 개선과 관련해서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물 배출량을 각각 8% 이상 감축하고 오염날씨를 점차 줄이며, △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화학적 산소요구량, 인(磷) 배출량을 각각 6% 감축하고 30개 중점 호수·저수지 생태 보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 토양오염 정화와 관련해서 토양오염물 원천 방지 및 통제 강화함.

- ※ 환경 리스크 방지 및 통제 강화를 통해 △ 도시 생활 쓰레기 청소·운송능력 75만 톤/일 달성하고 창장유역 인산 석고 퇴적장 환경 리스크 점검 및 개선 등 고체폐기물 종합 관리 행동을 추진하고, △ 지속적 유기 오염물, 내분비 교란 물질, 항생제, 미세 플라스틱 등 새로운 오염물관리를 심층적으로 추진함.
- ※ 현대 환경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생태 환경 법전을 실시, 오염물 배출 및 환경의 질 기준 업그레이드
- 생태 시스템의 다양성·안정성·지속성을 향상함.
  - ※ △ ‘삼북(三北)’프로젝트 6단계(황하 ‘기(几)’자형 곡류부 생태복원 프로젝트, 커얼친·훈산다커 사막화(科爾沁和渾善達克沙地) 퇴치 프로젝트, 허시회랑-타클라마칸 사막(河西走廊-塔克拉瑪干沙漠) 접경지역 사막 관리 프로젝트), △ 칭하이-티베트 고원 생태 방벽 구역의 생태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싡장위안(三江源, 장강·황하·란창강 발원지) ‘중화 물탑(中華水塔)’ 보호 지원 체계, △ 창장 중점 생태구역 생태 보전 및 복원, 남방 구릉·산간지대 생태 보전 및 복원, 해안지역 생태 보전 및 복원, 자연보호지 체계적 건설 및 야생 동·식물보호 등 ‘3구4대(三區四帶)’를 주축으로 한 국가 생태 안보 방어벽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 새로운 국가 공원 신설, 자연보호구와 자연공원의 생태 서비스 역할 향상 등을 통해 자연 보호지의 체계적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상하이 천산(上海辰山), 시쌍반나(西雙版納) 등 국가 식물원 시스템을 구축함.
  - ※ △ 중점 생태기능 구역의 이전지급 시스템 구축, △ 산림, 초원 등 중요 생태 시스템에 대한 보상정책실시, △ 유역(流域) 중심의 수평적(지역 간) 보상 메커니즘 구축, △ 시장화 생태 보상제도 구축 등 생태 보전 메커니즘을 구축함.
- 녹색 생산·생활 방식 형성에 박차를 가함.
  - ※ 전체 과정과 사슬에서의 물, 토지, 광산 등 자원 절약 강화를 통해 ① 단위 GDP당 용수량을 10% 감소, ② 신규 건설 용지 규모 2,600만 무(畝) 내로 통제, ③ 대규모 고체폐기물의 연간 사용량 45억 톤 내외 달성 등 자원 절약과 집약적 이용을 강화함.
  - ※ 녹색 조세, 녹색 금융, 녹색 가격, 녹색 기준 등 녹색성장 정책 시스템을 정비함.
  - ※ △ ‘광반(光盤) 운동’(음식을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보급, △ 1회용품 사용 감소, △ 녹색 교통수단 우선적 선택 등 녹색 저탄소 전 국민 행동을 추진함.

## □ 임무 2 :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

### - 강하고 거대한 국내시장 구축

- △ 내수 확대라는 기본 전략 견지, △ 민생 보장과 소비 촉진, △ 물적 투자와 인적 투자를 긴밀히 결합, △ 소비와 투자 및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 촉진을 통해 국내 대순환의 내생적 동력과 신뢰성을 강화함.
- 상품과 서비스 소비의 빠른 증가를 촉진하고 소비를 대폭 진작시킴.
  - ※ △ 최저임금 기준 점차 인상, △ 1인당 소비지출 연동 최저생활보장 기준 동적 조정 메커니즘 구축, △ 민생 보장용 정부자금 지출 확대 등을 통해 주민 소비 기반을 강화하고 고용 촉진·소득증가·기대심리 안정화를 추진함.
  - ※ △ 커뮤니티 생활밀착형 서비스, 15분 편의 생활권 등 생활서비스 편의를 향상하고 △ 건강·교육 소비 등 투자형 소비 비중을 확대하며 △ 빙설관광·크루즈·요트·캠핑카·저고도 비행 소비 등 개선형 소비 활성화
  - ※ △ 노후주택 개조 및 스마트화 업그레이드 △ 자동차 소비를 구입관리에서 사용관리로 전환 △ 디지털 소비 확대 △ 국산 트렌드 브랜드·IP 굿즈·첫 출시 경제 촉진 등으로 상품 소비 확대 및 업그레이드
  - ※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 혜택 정책 확대, △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성이 높은 신소비 시나리오 조성,

△ 'Shopping in China'조치 추진, △ 유급 휴가제도 실시, △ 탄력적 분산형 휴가 권장, △ 초·중학교 봄·가을방학 도입 검토, △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소비환경을 지속 개선함.

○ 국가 전략 지원, 공급 구조 최적화, 민생 수요 충족 등 유효 투자를 확대함.

※ △ 국가 중대 전략실시 및 중점분야 안보 능력 프로젝트 건설, △ 인적자본 개발 및 인적 투자 전면 발전, △ 민생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 확대, △ 신형 인프라 및 무형자산 투자 확대 등 정부 투자성과를 제고시킴.

※ 철도,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물 공급 등 중대 공정 건설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장기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함.

※ △ 소비 시나리오 구축 및 인프라 업그레이드 투자 확대, △교통 허브, 산업 클러스터 등의 소비 확대 역할 추진, △ 물류 창고, 농촌 택배 물류 등 인프라 단점 보완, △ 내수 확대 정책의 복합적 효과 확대 등을 통해 투자-소비 간 선순환을 촉진함.

○ 전국 통일시장 건설 심층적 추진

※ 재산권 보호, 시장 진입, 정보 공개, 사회 신용, 인수합병, 시장 퇴출 등 전국 통일시장을 위한 기본 제도 마련

※ △ 공정경쟁 심사에 대한 강제적 제약 강화, △ 지방 정부 경제 촉진 행위 규범화, △ 행정 재량권 기준 제도 정비 등 공정 공평한 시장 질서를 유지함.

※ △ 국가 물류 거점 네트워크 구축, △ '일관 운송장 제도'(一單制) 및 '일관컨테이너 제도'(一箱制) 역점 추진, △ 입찰·낙찰 및 공공 자원 거래 플랫폼, △ 인공지능 응용과 빅데이터 감독 관리 등을 통해 시장 인프라 간 높은 표준의 연동을 촉진함.

- 고품질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 구축 가속화

○ △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며, △ 거시경제 거버넌스 효율성을 제고하고, △ 사회 전반의 내생적 동력과 혁신 활성화를 촉진함.

○ 각계 경영주체 활력을 충분히 활성화함.

※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 중추와 연결된 핵심 분야,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 관련 분야, 전략적 신흥산업에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함.

※ △ 인프라 경쟁 분야의 공정 개방 추진, △ 국가 중요 기술 난관 돌파에 참여하도록 지원, △ 자금조달 지원 정책 완비, △ 정부-기업 간 일상화 소통과 교류 강화 등을 통해 민간경제를 확대 발전시킴.

※ '고효율적 업무'를 추진, △ 기업 경영 관련 허가사항 간소화, △ 기업의 법 집행 관련 장기적 메커니즘 규범화 등을 통해 일류 기업 환경을 적극 마련함.

○ 시장화 요소 배치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함.

※ 토지시장, 자본시장, 기술시장, 디지털 시장, 노동 시장 등 요소 시장 시스템을 정비함.

※ 자원 요소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완비함.

※ 거시 자산 대차대조표 작성, 건설 용지 2급 시장 발전 가속화 등을 통해 효율성이 낮은 용지, 유휴 부동산, 기존 인프라 등 기존 자원을 활성화해서 활용함.

○ 내수주도, 소비 견인, 내생 동력의 경제성장 모델 등 거시경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함.

※ 국가발전 계획의 전략 방향 제시 역할 강화, 거시정책 기조 방향의 일치성 및 유효성 증가 등을 통해 거시 조정 제도 시스템을 완비

※ △ 재정자원 및 예산 종합 고려, 제로베이스 예산 도입 등 예산제도 △ 국가 중대전략 임무 및 기본 민생 재정 확보 등 재정지출 중 공공 서비스 지출 비중의 합리적 향상 등 지출구조 △ 합리적인 거시 조세 수준 유지, 직접세 비중 제고, 소비세 징세의 후방 이전 및 지방이양 추진 등 현대화된 조세제도 구축

- ※ 리스크 방지·감독관리 강화·질적 성장 촉진 등을 위한 과학적·안정적인 통화정책 시스템 및 전면 적용 가능한 거시 건전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과학기술 금융·녹색 금융·포용 금융·양로 금융·디지털 금융 등을 중심으로 금융 강국 건설을 가속화함.

- ※ 투자·용자와 조화로운 자본시장 기능을 구축하고 중장기 자본의 시장유입 정책 시스템을 지원하며, 직접 투자·용자 비중을 확대함.

- 고품질 대외 개방 확대

- △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 평등·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의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선도하고 △ 세계 각국과 기회 공유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함.

- 국제적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규칙에 접목한 개방 확대, 국내의 규칙·규제·관리·표준의 상호 인증 촉진 등 자체적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함.

- ※ △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감소, △ 시범적 개방의 안정적 실시, △ 전자통신·바이오 기술·외국인 독자 병원 등 추가 개방 등을 통해 개방 분야와 지역을 질서 있게 확대함.

- ※ 최빈국 및 협력 잠재력이 큰 경제무역 파트너에 대해 단방향 개방을 확대함.

- ※ 지식재산권·친환경 표준·노동보호·정부 조달·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입법 수정·정책 조정·표준 수정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규칙에 접목한 제도 및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 △ 하이난자유무역항 전 섬 봉관 운영, △ 보다 더 개방된 인력·운송·금융·디지털 등 정책 실시, △ 자유무역 시범구 업그레이드 전략 실시, △ 디지털 경제·기술혁신·역외 무역 등에 대한 최초 제안 및 최초 시행 추진, △ 기능 유사 및 지역 인접 플랫폼의 최적화 통합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개방 배치를 최적화함.

- 무역 투자 협력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킴.

- ※ △ 상품무역 업그레이드, △ 서비스무역 발전 강화, △ 국경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완비, △ 국경간 전자상거래 등 신업태·신모델의 발전 지원 등을 통해 수출입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고 무역의 혁신 발전을 추진함.

- ※ △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전면 실시, △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지역 본부, R&D 센터 구축하도록 대대적으로 유치, △ ‘투자 중국(投資中國)’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외자 유치와 외자 활용을 강화함.

- ※ △ 여건을 마련한 기업이 호혜상생의 해외 투자 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 △ 인터넷 플랫폼·인공지능 등 기업의 해외 응용 시나리오 확장 장려 △ ‘제조+서비스’의 해외 경영 네트워크 확대 △ 해외 종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산업사슬·공급사슬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다국적 배치 유도로 국제 산업·투자 협력을 촉진함.

- 인프라의 ‘경성 연결(硬联通)’·규칙 및 표준의 ‘연성 연결(軟联通)’·공동 건설 국가 국민의 ‘심적 연결(心联通)’ 등을 통해 고품질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함.

- ※ 발전 전략을 심층적으로 매칭시킴.

- ※ △ 중-유럽 열차 발전 수준 향상 △ 14개 허브 및 거점 도시 건설 지원 △ 실크로드 해운의 항만·해운·무역 통합 발전 △ 공중 실크로드의 질적 건설 △ 공간 정보 회랑 건설 협력 등 입체적 상호 연결 네트워크를 배치함.

- ※ 녹색성장·인공지능·디지털 경제·보건건강·관광·농업·기후·베이더우(北斗) 활용 등 분야 협력의 새 기회를 모색하고 실질적 협력과 성과를 전면적으로 확대함.

-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함.

- ※ △ WTO를 핵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 수호, △ 글로벌 지향성 고표준 FTA 네트워크 확대, △ 국제 거

시 경제정책 조율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함.

※ 글로벌 파트너 관계 네트워크 확대 및 주변국과의 융합 발전 심화 등을 통해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함.

※ △ 국제 공정주의 유지, △ 각 국민의 공동 이익 수호 등 보다 더 많은 국제 공공제품을 공급함.

#### - 농촌의 전면적 진흥 추진

○ △ 농업·농촌의 우선적 발전 견지, △ 도농 간 융합 발전 견지, △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 구축, △ 도농 간 발전 격차 축소, △ 농업 강국 건설 가속화 등을 추진함.

○ △ 생산·수요 연결, △ 구조 최적화, △ 품질 향상 추진 등을 통해 농업 종합 생산력과 질적 효율을 향상시킴.

※ △ 고표준 농지(農田) 건설, △ 720개 식량 생산 증가 중점 현(縣) 건설, △ 여건을 구비한 영구적 기본 농지를 모두 고표준 농지로 건설, △ 흑토 보호·산성화 경지 정비·염분 및 알칼리성 토지 종합 이용 등 경작지와 농업기술 발전을 통한 식량 생산 강화 전략을 실시하고 식량 등 중요 농산품의 공급보장을 강화함.

※ △ 농업기술 발전·녹색 농업·품질 농업·브랜드 농업 발전 추진, △ 종자업진흥 행동 계획 실시, △ 고품질 농기구 장비 발전 행동 계획 실시 등을 통해 농업기술 및 장비를 강화하고 농작물 경작·수확의 기계화 비중은 80% 이상으로 높이고 농업의 핵심 종자 자급률은 85% 달성함.

※ 다원화된 식량 공급 시스템을 구축함.

○ 농촌 인프라 완비 수준·공공 서비스 편의 수준·거주환경 쾌적 수준의 점진적 향상을 통해 거주·취업 친화적 아름다운 농촌을 조성함.

※ 전역 토지 종합 정비 추진을 통해 농촌의 양질 생활 공간을 마련함.

※ 농산물 가공업·농촌 레저관광·농촌 전자상거래 등 현역(縣域) 주민 부 창출 산업을 발전시킴.

※ 농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개선함.

○ '강농·혜농·부농'(強農惠農富農) 정책 성과를 확대함.

※ △ 식량 주요 생산지 이익 보상, △ 생산·판매구역 성(省) 간 수평적 이익 보상, △ 식량 생산 대 현(縣) 장려·보조금 제도 등 농민의 종자·식량 소득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투입 보장을 강화함.

※ △ 제2차 토지 도급 만기 후 30년 재연장 시범의 안정적 추진, △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 시장 진입 개혁 추진, △ 법에 따른 유휴 토지 및 주택 활성화 활용 등 농업·농촌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함.

※ △ 맞춤형 지원 견지, △ 내생 동력 강화, △ 대규모 재빈곤(返貧)·빈곤유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 등 상시적 지원 메커니즘을 완비함.

#### - 지역 경제 배치 최적화 추진

○ △ 지역 균형 발전 전략 △ 지역별 중대 전략 △ 주체 기능 구역 전략 △ 신형 도시화 전략의 중첩 효과를 통해 주요 생산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상호 보완적·질적 성장 지역의 경제 배치 및 국토 공간 시스템을 구축함.

○ 지역발전의 협조를 확대함.

※ △ 서부 대개발의 새로운 구조 추진, △ 동북부 전면 진흥의 새로운 돌파, △ 중부지역 굴기 가속화의 새 국면 개척, △ 동부지역의 현대화 추진 가속화 등 동·중·서부와 동북부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수준을 향상함.

※ △ 현대화 수도도시권 건설 및 높은 표준·고품질 송안신구 현대화 도시 건설을 통해 징진지(京津冀)의 보다 더 긴밀한 전면적 협동 발전 구도 형성, △ 상하이 '5개 센터' 건설 가속화 및 높은 표준의 창장삼각주 생태 녹색 통합 발전 시범구 건설 등을 통해 창장삼각주의 통합 발전 메커니즘 완비, △ 고품질 형칭, 첸하이, 난사, 허타오 등 중요 협력 플랫폼 건설을 통해 광둥-홍콩-마카오 지역의 규칙 연결·메커니즘 매칭·법적 보장 등을 추진하고 징진지, 창장삼각주,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의 원동력 역할을 확대함.

- ※ △ 창장본류(干流)의 Ⅱ류 수질 유지 및 주요 지류(支流)의 Ⅱ류 수질 유지 등을 위해 창장 경제벨트를 공동 보호하고 대규모 개발을 금지하며, △ 상류 수원 보호 및 중류 수토 유지, 하류 습지 보전 및 생태복구, 수자원 절약 및 통제 난관 극복 등을 위해 황하유역 협동 보호 구도를 완비하여 창장 경제벨트 발전과 황하유역 생태 보전 및 질적 성장을 추진함.
- ※ 노후 혁명지·국경지대·노후 공업기지 및 자원형 지역 전환 등 특수지대의 진흥 발전을 지원함.
- 지역 간 연계 발전을 촉진함.
  - ※ △ 다지역·다유역 간 통로에 기반하고, △ 도시군 연계 발전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며, △ 통합된 제도 협력을 담보로 삼아 청두-충칭 간 양 도시권 발전을 확대하고 창장 중하류 도시군의 빠른 발전을 추진하는 지역 간 연계 발전 배치를 완비함.
  - ※ 규칙 총괄·산업협력·이익 공유의 지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함.
- 국토 공간 발전 구조를 최적화함.
  - ※ △ 도시화 지역의 경제 인구 집약에 대한 수용력을 확대하고, △ 농산물 생산지의 농업 종합 생산력을 증대하며, △ 주요 생태기능구의 자연 생태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체 기능 구역의 전략 실시를 강화함.
  - ※ △ 경지 보호선을 통해 영구적 기본 농지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 생태 환경 보호선을 통해 보호선 내 인위적 활동에 대한 차별화 관리를 실시하며, △ 도시개발 경계선을 통해 인구 및 산업 동향에 따른 도시화 개발 경계선을 최적화하는 국토 공간 관리를 개선함.
  - ※ △ 국가 중대 프로젝트 용지 보호 메커니즘, △ 성급 정부의 건설 용지 종합 관리 자율권 부여, △ 용지 심사와 계획 허가 간의 유기적 융합을 통해 국토 공간 협동 관리를 강화함.
- 인간중심의 신형 도시화를 추진함.
  - ※ 호구제도 개혁 심화(△ 초대형·특대형 도시의 점수제 호구 취득 정책 완비, △ 가도(街道) 혹은 지역사회 공공 호구 전면 설치, △ 상주도시 등록 호구 점차 실현 등)와 상주지 기본 공공 서비스 제공(△ 농민공의 도시 직원 사회보험 가입 비중 확대, △ 이주 자녀의 지속적인 기초 교육 이수 추진, △ ‘사람-지방-자금’ 연결 메커니즘 구축 등)을 통해 농업 이진인구의 도시 시민화를 추진함.
  - ※ 통근 편의, 산업 연계 협력, 생활 편의 등 도시권의 도시간 통근 효율 향상을 통해 현대화 도시권을 육성함.
  - ※ △ 지하 파이프라인 건설 개조 공정, △ 거주 적합성 수준 향상 공정, △ 노후 블록 및 공장 개조 공정 등 도시 업그레이드 공정과 인프라 안전 공정 건설을 추진하여 현대화 국민 도시를 건설함.
  - ※ 현에 기반한 도시화 건설을 분류별로 추진함.
- 해양 개발·이용·보호를 강화함.
  - ※ 해양 장비·해양 바이오 의약·해수 담수화·현대 해운 서비스 등 해양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진함.
  - ※ △ 연안해역 우량 수질 비중 86% 내외 달성, △ 대륙 자연 해안선 보유율 35% 이상 유지, △ 해역 공간 입체적 다중 활용 추진 등을 통해 해양 생태 환경을 보호함.
  - ※ 국가 해양 권리를 보호함.

### □ 임무 3 : 전 국민의 공동 부유 추진

#### - 전 민족 문화 혁신과 창조 활성화 추진

- 정보 기술 발전 흐름에 따라, △ 강력한 사상적 방향 인도 능력을 높이고, △ 정신적 응집력·가치적 감화력·국

제적 영향력을 지닌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 문화 강국 건설을 착실히 추진함.

- 고품질 인구 발전 촉진
  -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 인구발전 전략을 보완하고, △ 모든 군중과 전 생명주기에 걸친 인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 기반을 마련함.
- 민생 보장과 개선 강화
  - △ 보다 더 공정한 포용형·맞춤형 사회정책을 실시하고, △ 포용적·기초적·최후 보호막 역할을 하는 민생 건설을 강화하고, △ 대중의 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 임무 4 : 발전과 안보의 통합적 고려

- 국가 안보 시스템과 능력 현대화 추진
  - △ 전반적인 국가 안보 관념을 철저히 실시하고, △ 새로운 안보 구도 구축을 가속화하며, △ 국가 안보 전략 능동성을 강화하고, △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견지함.
- 고품질 국방과 군대 현대화 추진
  -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3단계' 전략에 따라, △ 정치적 군대 건설, △ 개혁을 통한 군대 강화, △ 과학기술을 통한 군대 강화, △ 인재를 통한 군대 강화, △ 법치에 의한 군대 관리를 추진하고, 투쟁(边斗争), 전쟁 대비(边备战), 건설(边建设)을 병행하여 국가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전략적 능력을 제고함.

## 4. 향후 5년 한중 협력방향

- 중국 디지털화, 녹색화 발전에 따른 기회 창출
- 대중국 투자를 통해 중국의 거대한 시장 활용
- 중국기업의 대한국투자, 중국 관광객의 한국관광에 양호한 환경 마련
- 한중 인문 교류 강화
-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실질적인 협력 추진

## 질의응답(Q&A):

Q 1. '15·5' 계획의 전략적 임무에 대해 구체적인 분야별로 이야기하시면서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하려면 현대화 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심. 그중 특히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발전을 신질산업과 서비스업보다 더 우선순위로 제시하였는데 이에 어떤 특별한 정책적 함의가 있는지 궁금함. 그리고 2025년 12월에 발표된 초안에서는 석유화학, 철강, 기계, 야금 등 구체적인 소재 산업의 고도화를 언급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지? 공급망 안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반내권(反內卷)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A 1. 2023년에 시진핑 주석이 동북 진흥 20주년 좌담회 때 처음으로 신질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함.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질 생산력을 신산업과 신업태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이해하고 모두 신산업과 신업태로 몰림. 하지만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 차원에서 여전히 전통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아울러 전통산업은 중국 산업의 중요한 기반임. 신산업과 신업태에 자원이 쏠리는 현상에 대비해, 이후 시진핑 주석은 전통산업 고도화 역시 신질 생산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신산업과 신업태의 발전도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떠날 수 없음. 예컨대 대부분의 신소재 역시 전통 소재를 생산하던 공장을 기반으로 생산함. '15·5' 계획 시기는 신규 동력이 가장 빠르게 교체되는 시기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기회를 포착해야 지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지난 37년간 중국 경제성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광둥은 최근에 전통산업 고도화 등 문제로 인해 일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가령 광둥성의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전통 자동차 위주로 하고 있고 신에너지 자동차나 스마트 자동차로 전환이 더디며 부동산 시장도 큰 타격을 받아 전국에서의 경제 선두지위가 흔들리고 있음. 향후 경제 경쟁력을 키우려면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의 발전을 병행해야 함.

Q 2. '15·5'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場景'(시나리오)란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새로운 키워드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A 2. '場景'(시나리오)는 중국이 신산업과 신업태의 발전을 위해 마련한 플랫폼이나 시범 사용 현장으로 볼 수 있음. 가령 현재 중국은 저고도 비행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저고도 비행은 공중 안전, 국방 안보 등 요인 때문에 비행 테스트 가능 구역을 쉽게 개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저고도 비행 경제의 발전은 정책 지원이 필요함. 정부가 일부 지역을 선제적으로 개방하여 산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예컨대 안후이 허페이 뤼강공항(骆岗机场)을 시범 현장으로 지정해 저고도 비행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지역에서 드론 비행, 저고도 비행 물류, 저고도 비행 관광 등 신업태의 발전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임. 이러한 개방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저고도 비행 경제는 발전하기 어려움. 또한 신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청정에너지도 예로 들 수 있음. 청정에너지의 활용은 인프라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특히 시범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적 지원이 필요함.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중국 정부는 일부 지역을 청정에너지 사용 현장으로 지정해 동 구역에서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트럭, 공공버스 등의 운영을 테스트하고 있음.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이런 테스트에 참여함에 따라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음. 즉 신산업과 신업태의 발전은 시범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

폼이나 시험 현상이 필요한데 이런 테스트 환경을 '場景'(시나리오)라고 함.

Q 3. '15·5' 기획에서 한국과의 협력 중 인문 교류 강화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이에 깊게 공감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정치 이슈가 생길 때 경제 조치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교류환경이 불안정적이거나 불확실성이 생기게 됨. 이런 상황은 기업 등 관련 주체가 투자 확대나 협력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관망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함. 앞으로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제도 보완이나 대외 안정적 환경 마련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A 3. '15·5' 시기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됨.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수출에 많이 의존하였고 내수 동력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중국은 우호적인 인접 국가와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함. 하지만 '15·5' 시기 미·중 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타 국가는 중국과 미국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음. 글로벌화에서 역글로벌화로 바뀌면서 국가 간의 교류는 정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 한국과 중국은 지역적으로 가깝고 문화 측면에서도 서로 통하는 면이 많음. 개인적으로 한·중 관계는 중·일, 중·미 관계와는 다르다고 생각함. 중국은 시종일관 한국을 좋은 협력파트너, 좋은 이웃으로 생각함. 시진핑 총서기 정권 이후 중국 경제 발전의 질서나 규칙 등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외자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간기업도 새로이 적응하고 있음. 현재 중국 경제는 뉴노멀 시대(新常态)에 들어섰고 과거 고속 성장에서 현재 중·고속 성장으로 바뀌면서 제도나 규칙 등은 과거에 비해 더 규범화됨. 외자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모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함.

중국은 여전히 외자 유치를 중요시함. 그리고 중국의 새로운 규칙과 제도하에서 기업 역시 발전을 거듭함. 특히 지난 '14.5' 시기, 코로나 팬데믹과 지정학적 충돌 등을 겪으면서도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잘 지켜내고 기술혁신도 활발하게 잘 추진되었으며, 특히 디지털화, 녹색화 및 고속철도 등 분야에서 글로벌 톱 수준의 기술을 확보함. 따라서 많은 외자기업도 중국의 시장과 신산업 발전 기회에 많은 관심을 보임. 특히 2026년에 들어선 후 EU, 캐나다 등 국가는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의향을 밝혔음. 한·중 양국 기업은 계속해서 자원과 산업 간의 우위 보완을 통해 공동 발전하고 중국 기술혁신에 따른 기회를 포착해 중국 시장을 공동 개척하길 바람.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음. 향후 한국기업의 중국 정책 불확실성이나 불연속성 등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의 원활한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음. 가령 한국대사관이나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중국 주관부처에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할 수 있음. 중국 정부는 민간의견을 잘 접수하는 편임. 특히 '15·5' 기획 작성 시에도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접수하고 반영함. 따라서 우선적으로 양국 간의 원활한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러한 상시화된 소통 메커니즘을 통해 한중 협력과 교류를 저해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 코로나 시기 일부 외자기업이 노동집약형 산업을 동남아 국가로 이전시켰는데 최근에 다시 중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나타남. 그 원인을 살펴보면, 현재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노동우위가 점점 감소하면서 동남아 국가에 비해 중국의 종합 생산비용이나

기업 환경 및 산업사슬 우위가 점점 부각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람.

Q 4. 지난 3월 23일에 시진핑 총서기가 솽안신구를 방문함. 2017년에 솽안신구 개발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시진핑 총서기께서 솽안신구를 4~5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음. 중국 정부는 솽안신구를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동안 외국기업의 투자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외국기업 투자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솽안신구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4. 솽안신구의 지위는 한국의 세종시와 비슷함. 솽안신구의 가장 큰 역할은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고 솽안신구의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은 바로 베이징의 대도시 병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베이징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붐비고 혼잡함. 또한 솽안신구를 통해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즉 징진지 통합 발전에 있어서 허베이 발전이 가장 더딘데 솽안신구를 통해 허베이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행정구역별로 보면, 솽안신구는 기존 19개 국가급 신구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지정된 국가급 신구로 도시의 발전 목표는 기업이 집중된 빠른 발전이 아니라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분산하는 것임. 따라서 현재 주로 베이징의 중앙기업, 대학교, 공공부처 등을 솽안신구로 이전시킴. 솽안신구는 향후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여전히 도시 계획 건설 단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베이징의 기능 분담역할을 할 것임. 전국 기업이나 외자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지 않음.